

- 하악 소구치의 근관형태

하악 제 1 소구치와 하악 제 2 소구치의 치관은 그 형태가 다소 다르나 근관의 형태는 유사하다. 하악 소구치는 하나의 근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관의 형태는 다양하여 근관치료를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악 소구치의 근관은 치경부측에서 협설측으로 넓은 타원형을 하며 치근단으로 갈수록 원형으로 좁아지는 형태를 한다(그림 1의 a와 b). 그러나 근관의 근심부와 원심부에 상아질의 침착이 많으면 근관은 종단면에서 리본 형태를 하며 근관의 협측부와 설측부는 넓은 구로 연결된다(그림 1의 c). 근관내에서 근원심으로 상아질 격벽이 형성되면 근관은 협측과 설측으로 분리되며 이러한 격벽은 근관의 중앙부나 치근단부에 형성된다. 이 분리된 근관은 다시 모여 하나의 치근단공을 가지거나 또는 분리된 각각의 치근단공을 가지게 된다(그림 2의 a, b, c). 방사선 촬영시 분리된 근관이 중복

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설측으로 분리된 근관은 기구의 도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치근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소구치인 경우 주 근관에서 치근단을 향하여 근관이 넓어져서 치근단공이 넓은 타원형을 하거나(그림 3의 b), 격벽에 의해 치근단에 아주 가까운 부위에서 근관이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그림 3의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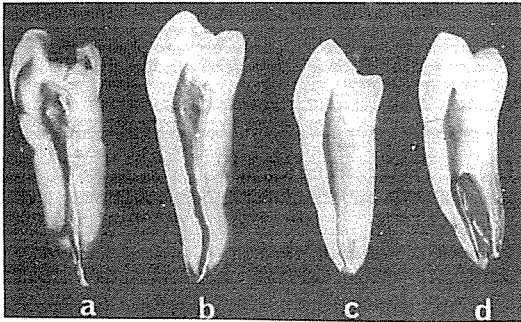


그림 1. a, b. 하악소구치의 전형적인 근관형태
c. 협설로 넓은 근관형태
d. 격벽에 의해 분리된 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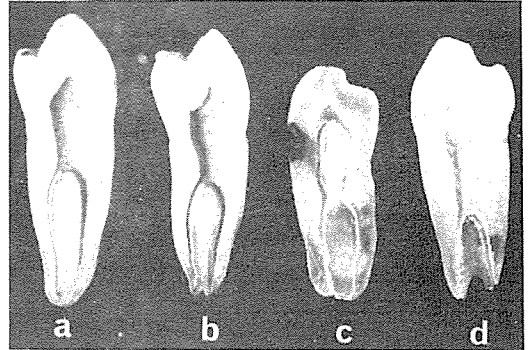


그림 2. a, b, c, d. 격벽에 의해 분리된 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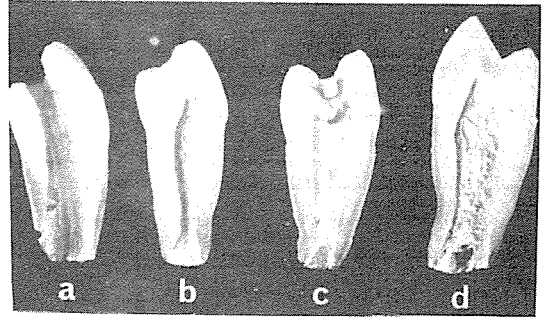


그림 3. a, d. 비정상적으로 넓은 근관
b. 치근단공이 넓은 근관
c. 치근단에 인접해서 분리된 근관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 · 종로구 송인동 1081

전 화 : 923-6671 · 923-2998